

치기공과 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와 생활양식 유형과의 관계

김 희 정
목포과학대학 치기공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mpus life satisfacti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Life style type of Dental technology College Students'

Hee-Jung Kim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Mokpo Science Colleg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which it sees life style of the individual and is the stroke engineering military merit satisfac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That Adler talked, it classified life style with the socially useful type, the ruling type, the getting type and the avoiding type. This governing form of the socially useful type sees, the ruling type grew the getting type and the avoiding type compared to military merit satisfactory boat song.

Like this results military merit satisfactory degree of stroke engineering school lifestyle professionalism as dental technician company route period operates with the VIP who is important for is the thing.

The research of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he course map and the military merit duty selection map of restricted point and stroke engineering school lifestyle of the research which it sees discussed is necessary.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1. the types of Life-style ; the ruling type 31.3%, the getting type & the avoiding type 27.4%, the negative social type 26.6%, the socially useful type 14.8%
2. the Major satisfaction ; the socially useful type 3.59, the ruling type 3.55, the negative social type 3.51, the getting type and the avoiding type 3.35.
3. the Campus life satisfaction ; the socially useful type 3.39, the ruling type 3.32, the negative social type 3.24, the getting type and the avoiding type 3.12.

◉ **Key words** : life style, socially useful type, ruling type, getting type, avoiding type, the negative social type

교신저자	성명	김 희 정	전화	061-270-2715	E-mail	mars2540@naver.com
	주소	전남 목포시 상동 525, 목포과학대학 치기공과				
논문접수	2009. 8. 21		수정재접수	2009. 9. 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대학가는 것을 필수코스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취업이나 적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시 전문화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종의 학과를 다시 재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반대학에 비해 보건의료관련학과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학과에 재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생의 상당수가 대학 입학시 올바른 학과선택을 하지 못한 전공과 대학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학생도 상당수에 이르게 되었다.

치과의로 분야에서도 인구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및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구강보건 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론 및 재능을 겸비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치기공과 대학교육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구강보건인력인 치과기공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기공과의 교육과정은 1971년 고려대학교 병설의하기술초급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20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치기공학과는 4년제이며 현재 3년제인 김천대학은 2010년부터 4년제로 변경된다. 그 외 대학의 치기공과는 3년제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와 전공심화과정 개설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치기공과 학제가 개편되고 있으므로 치기공과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와 아들의 생활양식 분석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아들러는 우리를 배우, 창조자, 우리 삶의 예술가로 본다. 생애유형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한 고유의 방식을 말한다. 자신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독특한 행동, 습관들로 이루어지며 전반적으로 삶에

적용되고 상호작용하는 통합된 양식이다. 생활양식(생애 유형)은 생의 초기 5~6년 동안에 형성되는데 이것은 가족들과의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된다. 그러나 아동기의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내용의 많은 부분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호소(45%)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졸업유에 사유를 통해 잘 알 수 있다(정민, 2001).

Gentry등(1980)은 생활양식 유형과 사회적 관심, 직업만족 사이의 상관을 연구하였다. Kern 등(1996)은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적응정도를 알아보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국의 일부 3년제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결정시기,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졸업 후 진로선택 및 선호직무, 생활양식 등을 분석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치과기공사 교육과정에 바람직한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치기공교육환경의 개선 및 전공만족에 기여하는 상담 및 진로지도 활동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치기공과 대학생의 생활양식 유형을 분류하고, 생활양식유형이 치기공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치기공과 선택시기, 선택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치기공과 대학생에게 치과기공사에 대한 확신과 바람직한 진로지도방안을 모색하여 치기공 교육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치기공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 셋째, 생활양식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치기공과 대학생의 사회적 관심 정도와 활동 수준에 따른 생활양식과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틀러 이론의 주요개념인 사회적 관심, 활동수준, 생활양식, 치기공과, 치기공 직무 등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는 독일어의 공동체의식(Geimenschaftsgefühl)을 번역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느낌(social feeling), 공동체감(community intention), 공동체의 관심(community interest), 그리고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 이 중에서 마지막용어인 사회적 관심이 가장 많이 쓰인다.(Lundin, 2001) 아틀러는 사회적 관심이란 일체감이나 공감과 같으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Corey, 1996). 개인심리학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적인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일치하도록 도와주게 된다(Corey, 1996).

Crandall(1975)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관심을 개념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 즉,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Interest Scale or The Personal Trait Value Scale; SIS)의 발달을 위한 기초로 연구하였다.

사회적 관심에 관한 연구 경향은 주로 사회적 관심과 직업만족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 변인 사이의 상관은 연구 결과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merikaner등(1988)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정적상관을 발견했으나, Ugwokegbe(1991)는 두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 활동수준

활동수준이란 인생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인의 움직임, 소위 흥분 또는 에너지 수준과 일치한다. 물론 활동수준이 신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높은 활동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Lundin, 2001). 아틀러에 의하면 활동성이 없으면 사회적 관심은 기능할 수 없거나 표현될 수 없

으므로 높은 사회적 관심은 어느 정도의 활동성을 포함하여야 된다(Lundin, 2001).

활동수준에 관한 연구는 Mahoney & Cairns(1997)는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의 종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하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른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Cooper등(1999)의 활동방식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3) 생활양식

생활양식이란 삶의 양식, 생활계획, 삶의 운동, 생활의 전략, 삶의 지도 등의 동의어로 사용되며(Corey, 1996)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격 즉 특질, 행동, 습관의 독특한 형태를 나타낸다.

아틀러는 성격유형을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의 네 가지 체액; 혈액, 담즙, 점액, 흑담즙 각각에, 갈렌(Galen)의 쾌활한 성격, 성마르고 화 잘내는 성격, 냉담하고 무기력한 성격, 우울한 성격을 관련지었다. 아틀러는 이러한 네가지 체액에 사회적 유용형(the socially useful type), 지배형(the ruling type), 기생형(the getting type), 회피형(the avoiding type)과 관련시켰다.

사회적 유용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모두 높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 지배형은 활동수준은 높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으로 초기 어린 시절부터 인생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로 범죄자, 알콜중독자 등이 이에 속한다. 기생형과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모두 낮은 사람들로 신경증환자나 정신병환자 등이 이에 속한다(Lundin, 2001).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고 활동수준이 낮은 유형이 있다. 아틀러는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활동수준이 있음을 의미하며, 활동수준이 낮다면 사회적 관심은 기능할 수 없거나 표현될 수 없으며 이러한 유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정민(2001)은 이러한 유형을 소극적 사회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은 높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유형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사회적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유형으로 설명했다.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 첫째, 생활양식 척도의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Kern, 1982). 둘째, 특징인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직자의 생활양식이 정당함, 우월함, 좋은 생활양식이 지배적임을 보여주었으며(Newlon, Mansager, 1986) 간호사는 통제형이 많다는 연구(Bickekas, Newlon, 1983), 동성애자의 생활양식이 주로 방어적이고 적대적인 생활양식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Friedberg, 1975). 생활양식 유형이 직업만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우울, 초기 기억과 우울성, 열등감과 생활양식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경순(199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틀러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생활양식 유형 중 상위 유용형 집단과 하위 회피형 집단에서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잘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민(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유용한 형과 지배형이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기공과

치기공과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

물,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말한다.

치기공과의 교육과정은 1971년 고려대학교 병설초급대학을 시작으로 2년제 학제로 시작되어서 1994년 이후 3년제 학제로 변경되었다(정영해, 2004). 또, 2000년에는 3년제 지산대학이 부산가톨릭대학교와 통합되면서 최초의 4년제 치기공학과가 개설되었으며 2006년에는 고려대학교 병설보건대학이 고려대학교와 통합되면서 4년제 치기공학과로 개설되었다.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18개교와 4년제 2개교로 전국에 20개교가 치기공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3년제 전문학사의 4년제 학위취득과정으로 학점은행제와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3년제인 김천대학은 2010년부터 4년제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치기공과 대학교육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구강보건인력인 치과기공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순석, 2002).

치과기공학의 교육 목적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구강보건 전문인력 자원의 주요 일원으로서 상실된 치아 및 주위조직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치과보철물 제작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기술인인 치과기공사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치기공과에서는 전문지식과 현장 직무수행능력 및 높은 도덕성과 봉사정신을 지닌 숙련된 치과기공사를 양성, 국민구강보건에 이바지한다.

〈Table 1〉 2009년 전국 치기공과 현황

대 학 명	지 역	학과개설연도	학 제
광주보건대학	광주	1982	3년제
김천대학	경북	1983	3년제 (2010년도부터 4년제)
대구보건대학	대구	1972	3년제
대전보건대학	대전	1978	3년제
동남보건대학	경기	1982	3년제
동우대학	강원	1984	3년제
목포과학대학	전남	1982	3년제
신구대학	경기	1974	3년제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	1984	3년제
신흥대학	경기	1976	3년제

계속 →

← 계속

대 학 명	지 역	학과개설연도	학 제
원광보건대학	전북	1976	3년제
진주간호보건대학	경남	1982	3년제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	2000(1981)	4년제 (1999년도까지 3년제)
광양보건대학	전남	2001	3년제
동아인재대학	전남	2001	3년제
마산대학	경남	2001	3년제
해전대학	충남	2002	3년제
제주관광대학	제주	2005	3년제
주성대학	충북	2005	3년제
고려대학교	서울	2006(1971)	4년제 (2005년도까지 3년제)

5)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는 과학적인 방법과 숙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인체의 일부인 구강이나 안면에 삽입되거나 매식되는 각종의 의치, 치과충전물, 악안면 보철물, 그리고 치과교정 장치물 등의 여러 가지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게된다(보건복지부, 1995).

치과기공사(Dental Technologist 또는 Dental Technician)는 손상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과기공물을 취급하는 면허자격을 가진 고도의 의료 전문직(specialist)이다. 치과기공사는 단순히 치과기공물만 제작하는 것만 아니라 치과의료 팀의 한 일원으로서 보철물 제작 계획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독립하여 직접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는 치아에 필요한 모든 보철물을 만드는 의료기사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치아의 멋과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어 치과기공사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일단 치과기공사가 되려면 수공능력과 함께 치밀함과 관찰력이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한다.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및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중 하나로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의료기사법 제2조).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

해서는 치과기공사 교육은 전국에 18개 3년제 대학과 2개의 4년제 대학의 치기공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이나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한 후 치기공과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다.

6) 치과기공사의 직무

치과기공사의 직무는 치과기공사직무분석에 따른 13개 분야를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0).

치과기공사 인력실태 및 수급관리 연구(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04)에서 나타난 치과기공사의 담당파트별 근무현황은 도재 295명(36.1%), 관교 234명(28.6%), 보철 133명(16.3%), 국부 총의치 118명(14.4%), 교정 27명(3.3%)의 순이었으며 기초 편작업(0.6%)이나 연마분야(0.6%)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아주 적은 편이었다.

보통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분야는 관교의치, 도재, 국부의치 및 총의, 교정 업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 업무의 상호 연관성은 관교의치와 도재업무, 관교의치와 국부의치, 도재와 국부의치, 관교의치와 도재와 국부의치는 서로 연관성이 매우 깊을 때가 많다(박남은, 2004).

오선미(2003)의 치과기공사의 조직몰입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업무분야별 근무현황은 도재부서 35.9%, 관교의치 부서 29.3%, 기타 19.6%, 국부 및 총의치 부서 15.2%로 나타났다.

(Table 2) 치과기공사의 근무분야 빈도 분포

분 야	빈 도	퍼 센트 (%)
임시치관제작	35	11.7
인레이 및 관교의치제작	28	9.4
도재관 제작	35	11.7
전부도재관 제작	38	12.7
임시의치 제작	14	4.7
국소의치제작	9	3.0
총의치 제작	9	3.0
어테치먼트 제작	15	5.0
매식보철 제작	7	2.3
가철식교정장치 제작	6	2.0
고정식교정장치제작	0	0
교정용연구모형	4	1.3
결측치	99	33.1
합 계	299	100.0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치기공과 대학생의 생활양식과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치기공과가 개설된 전국의 20개 대학(교) 중 에서 임의로 선정된 7개 대학의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1107부(88.6%)가 회수 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 점수의 고저에 따라 네가지 생활양식으로 분류한 정민 (2001)의 사회적 관심 설문지와 활동수준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종속측정치는 전공만족도를 Likert형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내용은 연령, 성별, 지역, 형제순위, 치기공과 선택 결정시기, 치기공과 선택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 족도, 친인척 중의 치과의료관련 종사자의 유무, 졸업 후 진로선택, 전공 선호직무, 사회적 관심, 활동수준으로 구 성되어 있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의료종사 자의 유무, 진로선택, 선호직무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는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은 교차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은 남자 56.5%, 여자 43.5%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 재 치과기공사의 일반현황인 남자 69.0%, 여자 31.0%보 다 남녀의 비율(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05)이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53.7%, 2학년 40.5%, 3학년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의 분포가 낮은 이유는 치과기 공사 국가시험으로 인해 설문조사가 어려웠다.

연령대별로는 만20세 이하 48.1%, 만21세~만25세 이하 40.4%, 만26세~ 만30세 이하 8.0%, 만 31세~만40세 이하 3.1%, 만41세 이상 0.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대구 20.0%, 전남 17.6%, 대전 14.8%, 광주 14.6%, 전북 12.9%, 경기 12.2%, 경남 7.9%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는 막내 44.1%, 첫째 35.2%, 중간 16.2%, 독자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기공과 선택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고등학교 59.7%, 타대학교 16.2%, 직장 및 사회생활 11.3%, 기타 7.2%, 군대 4.7%, 중학교 0.6% 순으로 나타났다.

치기공과 선택동기는 취업 및 직업의 안정성이 50.3%, 고교성적 고려 4.8%,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27.2%,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9.4%,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1.1%, 기타 7.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 48.1%, 만족 33.7%, 불만족

10.9%, 매우 만족 4.2%, 매우 불만족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44.1%, 보통 39.1%, 매우 만족 7.9%, 불만족 6.7%, 매우 불만족 2.2%로 대부분 보통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중 치과의료관련 종사자 유무에 대한 응답은 없다 69.0%, 있다 31.0%로 나타났다. 있다의 경우, 치과기사 14.7%, 치과의사 12.5%, 치과위생사 3.0%, 치과재료상사원 0.8%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한 응답은 전공직업으로 결정함 86.4%, 진로결정하지 못함 11.7%, 전공과 무관한 직업으로 결정함 1.9%로 나타났다.

전공 선호 직무는 도재파트 29.4%, 관교파트 17.4%, 기타 14.9%, 교정파트 14.3%, 국소의치파트 11.4%, 특수보철파트 6.7%, 총의치 파트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자	626	56.5	56.5
	여자	481	43.5	100.0
학년	1학년	595	53.7	53.7
	2학년	448	40.5	94.2
	3학년	64	5.8	100.0
연령	만20세 이하	532	48.1	48.1
	만21세~만25세 이하	448	40.4	88.5
	만26세~만30세 이하	89	8.0	96.6
	만31세~만40세 이하	34	3.1	99.6
	만41세 이상	4	4	100.0
학교 소재지별	광주	162	14.6	14.6
	경기	135	12.2	26.8
	대구	221	20.0	46.8
	대전	164	14.8	61.6
	경남	87	7.9	69.5
	전남	195	17.6	87.1
	전북	143	12.9	100.0

계속 →

← 계속

		구 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형제 순위		첫째	390	35.2	35.2
		중간	179	16.2	51.4
		막내	488	44.1	95.5
		독자	50	4.5	100.0
치기공과 선택 결정시기		중학교	7	.6	.6
		고등학교	661	59.7	60.3
		대학교	180	16.3	76.6
		직장 및 사회생활	125	11.3	87.9
		군대	54	4.9	92.8
		기타	80	7.2	100.0
치기공과 선택동기		취업 및 직업의 안정성	557	50.3	50.3
		고교성적 고려	53	4.8	55.1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301	27.2	82.3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104	9.4	91.7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12	1.1	92.8
		기타	80	7.2	100.0
대학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33	3.0	3.0
		불만족	121	10.9	13.9
		보통	533	48.1	62.1
		만족	373	33.7	95.8
		매우 만족	47	4.2	100.0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24	2.2	2.2
		불만족	74	6.7	8.9
		보통	433	39.1	48.0
		만족	488	44.1	92.1
		매우 만족	88	7.9	100.0
치과의료관련 종사자 유무	있다	치과의사	138	12.5	12.5
		치과기공사	163	14.7	27.2
		치과위생사	33	3.0	30.2
		치과재료상사원	9	8	31.0
		없다	764	69.0	100.0
진로선택		전공직업으로 결정함	956	86.4	86.4
		전공과 무관한직업으로 결정함	21	1.9	88.3
		진로결정하지 못함	130	11.7	100.0

계속 →

← 계속

	구 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선호직무	도재파트	326	29.4	29.4
	관교파트	193	17.4	46.9
	국소의치파트	126	11.4	58.3
	총의치파트	65	5.9	64.1
	특수보철파트	74	6.7	70.8
	교정파트	158	14.3	85.1
	기타	165	14.9	100.0

N=1107

2.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른 생활양식

사회적 관심 척도 및 활동수준 척도는 정민(2001)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각각의 24문항 중에 9개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에 각각 1점씩을 주었다. 점수 범위는 0~15이며, 9점이상은 각각 사회적 관심,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9점이하는 각각 낮은 것을 나타낸다. Table 4와 같이 사회적 관심은 평균 7.86, 표준편차 2.408, 활동수준은 평균 7.71, 표준편차 4.576으로 나타났다.

〈Table 4〉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

	평 균	표준편차
사회적 관심	7.86	2.408
활동수준	7.71	4.576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른 생활양식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높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수준은 사회적 유용형, 낮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수준은 지배형, 낮은 사회적 관심과 낮은 활동수준은 기생형 및 회피형, 높은 사회적 관심과 낮은 활동수준은 소극적 사회형으로 분류(정민, 2001)하였다.

〈Table 5〉 이데러의 생활양식 유형

		사회적 관심	
		고	저
활동수준	고	사회적 유용형	지배형
	저	소극적 사회형	기생형 회피형

대상자의 생활양식은 Table 6과 같이 낮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수준 346명(31.3%), 낮은 사회적 관심과 낮은 활동수준 303명(27.4%), 높은 사회적 관심과 낮은 활동수준 294명(26.6%), 높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수준 164명(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치기공과 대학생의 생활양식은 지배형, 기생형 및 회피형, 소극적 사회형 및 사회적 유용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심에 따른 활동수준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생활양식은 지배형 31.3%, 기생형 및 회피형 27.4%, 소극적 사회형 26.6%, 사회적 유용형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에 따른 생활양식

		활동수준		전 체
		높 음	낮 음	
사회적 관심	높 음	164 14.8%	294 26.6%	458 41.4%
	낮 음	346 31.3%	303 27.4%	649 58.6%
전 체		510 46.1%	597 53.9%	1,107 100%

3.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

1)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Table 7과 같이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남자가 3.55로 여자 3.41보다 높게 나왔으며(p<0.05)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Table 7〉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양측)
대학생활 만족도	남자	3.26	.854	.271	.787
	여자	3.25	.773		
전공 만족도	남자	3.55	.848	2.780	.006
	여자	3.41	.778		

2) 학년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Table 8과 같이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는 3학년 3.42, 1학년 3.30, 2학년 3.17순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검정결과 1학년과 2학년의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p < 0.05$). 학년별 전공만족도는 3학년 3.69, 1학년 3.52, 2학년 3.42 순으로 3학년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 ($p < 0.05$).

〈Table 8〉 학년별 전공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1학년	3.30	.807	집단-간	4.978	.007
	2학년	3.17	.840			
	3학년	3.42	.730			
	합계	3.25	.820	집단-내		
전공 만족도	1학년	3.52	.807	집단-간	3.654	.026
	2학년	3.42	.848			
	3학년	3.69	.710			
	합계	3.49	.821	집단-내		

3) 연령에 따른 전공만족도
 Table 9와 같이 연령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집단간의 차

이가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p < 0.05$). 연령에 따른 대학 생활만족도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Table 9〉 연령별 전공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만20세 이하	3.21	.820	집단-간	1.237	.293
	만21세~만25세 이하	3.29	.831			
	만26세~만30세 이하	3.21	.859			
	만31세~만40세 이하	3.47	.507			
	만41세 이상	3.25	.500			
합계	3.25	.820	집단-내			
전공 만족도	만20세 이하	3.39	.815	집단-간	4.338	.002
	만25세 이하	3.55	.842			
	만30세 이하	3.66	.783			
	만40세 이하	3.71	.462			
	만41세 이상	3.75	.957			
합계	3.49	.821	집단-내			

4) 학교소재지별 전공만족도
 Table 10과 같이 학교소재지별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경남 3.61, 경기 3.35, 대구, 대전 3.30의 순

으로 높았으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소재지별 전공만족도는 경남 3.83, 전남 3.57, 경기 3.56 등의 순으로 높았으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0〉 학교소재지별 전공만족도

	소재지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광주	3.09	.928			
	경기	3.35	.695			
	대구	3.30	.805			
	대전	3.30	.846	집단-간	.481	.696
	경남	3.61	.753			
	전남	3.06	.820			
	전북	3.27	.731			
	합계	3.25	.820	집단-내		
전공 만족도	광주	3.22	.978			
	경기	3.56	.698			
	대구	3.48	.840			
	대전	3.46	.824	집단-간	.748	.524
	경남	3.83	.668			
	전남	3.57	.752			
	전북	3.46	.785			
	합계	3.49	.821	집단-내		

5) 형제순위별 전공만족도
 Table 11과 같이 형제순위별 대학생활만족도는 중간 3.32, 독자 3.26, 첫째 3.25, 막내 3.23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순위별 전공만족도는 막내 3.52, 첫째 3.49, 독자 3.48, 중간 3.41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1〉 형제순위별 전공만족도

	형제순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첫째	3.25	.812			
	중간	3.32	.803			
	막내	3.23	.840	집단-간	.481	.696
	독자	3.26	.751			
	합계	3.25	.820	집단-내		
전공 만족도	첫째	3.49	.820			
	중간	3.41	.784			
	막내	3.52	.828	집단-간	.748	.524
	독자	3.48	.886			
	합계	3.49	.821	집단-내		

6) 치기공과 선택결정시기별 전공만족도

Table 12와 같이 치기공과 선택결정시기별 전공만족도는 중학교 4.14, 군대 3.76, 대학교 3.59, 직장 및 사회생활 3.58, 기타 3.58, 고등학교 3.41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집단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치기공과 선택결정시기별 대학생활만족도는 중학교, 직장 및 사회생활, 대학교, 기타, 군대, 고등학교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2〉 치기공과 선택 결정시기별 전공만족도

	결정시기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중학교	3.57	1.134	집단-간	1.240	.288
	고등학교	3.21	.842			
	대학교	3.32	.829			
	직장 및 사회생활	3.34	.683			
	군대	3.30	.861			
	기타	3.31	.739			
	합계	3.25	.820			
전공 만족도	중학교	4.14	.690	집단-간	4.441	.001
	고등학교	3.41	.836			
	대학교	3.59	.844			
	직장 및 사회생활	3.58	.687			
	군대	3.76	.845			
	기타	3.58	.725			
	합계	3.49	.821			

7) 치기공과 선택 동기별 전공만족도

Table 13과 같이 치기공과 선택 동기별 전공만족도는 기타 3.94, 취업 및 직장의 안정성 3.48,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3.45,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3.44,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3.33, 고교성적 고려 3.32 순으로 높았으며 집단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대학생활만족도는 기타 3.36, 취업 및 직장의 안정성 3.27,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3.25, 고교 성적 고려 3.25,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3.22,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3.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3〉 치기공과 선택 동기별 전공만족도

	선택동기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취업 및 직장의 안정성	3.27	.781	집단-간	.524	.758
	고교성적 고려	3.25	.939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3.22	.862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3.20	.793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3.25	.965			
	기타	3.36	.860			
	합계	3.25	.820			

계속 →

← 계속

		선택동기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공 만족도		취업 및 직업의 안정성	3.48	.783	집단-간 5.691	.000
		고교성적 고려	3.32	1.015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3.45	.813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3.44	.857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3.33	.778		
		기타	3.94	.801		
		합계	3.49	.821		

8) 친인척 중의 치과의로 관계 종사자 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

친인척 중의 치과의료관계 종사자 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Table 14, Table 15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치과의료관계자가 있다 3.57가, 없다 3.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대학생활만족도는 있다 3.30, 없다 3.23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과의료관계가 있는 경우의 전공만족

도는 치과재료상사원 3.89, 치과기공사 3.61, 치과의사 3.58, 치과위생사 3.2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치과의료 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대학생활만족도는 치과재료상사원 3.67, 치과기공사 3.35, 치과의사 3.30, 치과위생사 2.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4〉 치과의료관련인 유무별 전공만족도

		치과의료인유무	평균	표준편차	t	p-value(양측)
대학생활 만족도		있다	3.30	.817	1.288	.198
		없다	3.23	.821		
전공 만족도		있다	3.57	.821	2.068	.039
		없다	3.46	.819		

〈Table 15〉 치과의료관련인 종류별 전공만족도

		치과의료관련인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치과의사	3.30	.778	집단-간 2.366	.051
		치과기공사	3.35	.813		
		치과위생사	2.97	.951		
		치과재료상사원	3.67	.707		
		없다	3.23	.821		
		합계	3.25	.820		
전공 만족도		치과의사	3.58	.791	집단-간 3.085	.015
		치과기공사	3.61	.773		
		치과위생사	3.21	1.083		
		치과재료상사원	3.89	.782		
		없다	3.46	.819		
		합계	3.49	.821		

9)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선택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만족도는 <Table 16>과 같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001$). 전공만족도에 대한 전공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함 3.62, 전공무관한 진로결정 2.76, 진로미결정 2.65 순

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식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001$).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전공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함 3.34, 전공무관한 진로결정 3.10, 진로미결정 2.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식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001$).

<Table 16> 진로선택별 전공만족도

		진로선택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직업으로 결정함	3.34	.761	집단-간 46.953	.000
		전공과 무관한 직업으로 결정함	3.10	1.044		
		진로결정하지 못함	2.63	.925		
	합계		3.25	.820		
전공 만족도		전공직업으로 결정함	3.62	.727	집단-간 103.938	.000
		전공과 무관한 직업으로 결정함	2.76	1.136		
		진로결정하지 못함	2.65	.860		
	합계		3.49	.821		

10) 전공 선호직무별 전공만족도
 전공 선호직무별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만족도는 <Table 17>과 같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선호직무는 총의치 3.72, 특수보철 3.68, 관교 3.51, 도재 3.50, 교정 3.41, 기타 3.41, 국소의치 3.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선호직무는 특수보철 3.45, 총의치 3.32, 교정 3.28, 관교 3.25, 도재 3.23, 국소의치 3.22, 기타 3.18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7> 전공 선호직무별 전공만족도

		선호직무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도재파트	3.23	.818	집단-간 1.094	.364
		관교파트	3.25	.766		
		국소의치파트	3.22	.680		
		총의치파트	3.32	.954		
		특수보철파트	3.45	.796		
		교정파트	3.28	.838		
		기타	3.18	.912		
	합계		3.25	.820		
전공 만족도		도재파트	3.50	.747	집단-간 2.315	.032
		관교파트	3.51	.771		
		국소의치파트	3.40	.770		
		총의치파트	3.72	.801		
		특수보철파트	3.68	.813		
		교정파트	3.41	.897		
		기타	3.41	.956		
	합계		3.49	.821		

4.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Table 18>과 같다.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순서는 사회적 유용형 3.39, 지배형, 3.32, 소극적 사회형 3.24, 기생형 및 회피형 3.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p < 0.01$). 전공만족도가 높은 생활양식은 사회적 유용형 3.59, 지배형 3.55, 소극적 사회형 3.51, 기생형 및 회피형 3.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18> 생활양식 유형별 전공만족도

		생활양식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학생활 만족도		사회적 유용형	3.39	.779	집단-간	4.850	.002
		지배형	3.32	.807			
		소극적 사회형	3.24	.808			
		기생형 및 회피형	3.12	.851			
		합계	3.25	.820			
전공 만족도		사회적 유용형	3.59	.790	집단-간	4.225	.006
		지배형	3.55	.847			
		소극적 사회형	3.51	.761			
		기생형 및 회피형	3.35	.848			
		합계	3.49	.821			

IV. 고찰

본 연구는 치기공과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른 생활양식과 선호직무, 진로선택 및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치기공과 대학생의 직무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양질의 치과기공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졸업 후 전공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를 치기공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치기공과 대학생의 학년 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전체 학년에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부 대학의 치기공과 대학생으로 그 연구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가 치기공과 전체 대학생의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셋째,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 척도에 따른 생활양식 분류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아들의 네가지 생활양식

유형에는 소극적 사회형은 기생형 및 회피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활양식 분류 척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치기공과 대학생의 생활양식에 따른 진로지도, 전공직무 지도의 효과적인 상담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치기공과 교육과정이 치과기공사 직무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게 변화되어야 하겠다.

V. 결론

우리나라 치기공과 대학생의 생활양식과 대학생활 및 전공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1250명이었으며 1107부가 회수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양식

사회적 관심에 따른 활동수준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생활양식은 지배형 31.3%, 기생형 및 회피형 27.4%, 소극적

사회형 26.6%, 사회적 유용형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공만족도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남자가 3.55로 여자 3.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연령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졌다(p<0.05).

학년별 전공만족도는 3학년 3.69, 1학년 3.52, 2학년 3.42 순으로 3학년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p<0.05).

치기공과 선택결정시기별 전공만족도는 중학교 4.14, 군대 3.76, 대학교 3.59, 직장 및 사회생활 3.58, 기타 3.58, 고등학교 3.41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 치기공과 선택 동기별 전공만족도는 기타 3.94, 취업 및 직장의 안정성 3.48, 부모, 형제 및 친지의 권유 3.45, 교사, 선배 및 친구의 권유 3.44, 광고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3.33, 고교성적 고려 3.32 순으로 집단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전공만족도는 치과의료관계자가 있다 3.57가, 없다 3.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치과의료관계가 있는 경우의 전공만족도는 치과재료상사원 3.89, 치과기공사 3.61, 치과의사 3.58, 치과위생사 3.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전공만족도에 대한 전공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함 3.62, 전공무관한 진로결정 2.76, 진로미결정 2.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식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p<0.001).

전공만족도가 높은 선호직무는 총의치 3.72, 특수보철 3.68, 관교 3.51, 도재 3.50, 교정 3.41, 기타 3.41, 국소의치 3.40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공만족도가 높은 생활양식은 사회적 유용형 3.59, 지배형 3.55, 소극적 사회형 3.51, 기생형 및 회피형 3.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 대학생활 만족도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는 3학년 3.42, 1학년 3.30, 2학년 3.17순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검정결과 1학년과 2학년의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

다(p<0.05).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전공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함 3.34, 전공무관한 진로결정 3.10, 진로미결정 2.63 순으로 진로의식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p<0.001).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순서는 사회적 유용형 3.39, 지배형, 3.32, 소극적 사회형 3.24, 기생형 및 회피형 3.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참 고 문 헌

강열모. 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 실태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기공사 인력실태 및 수급관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보고서, 2005.

박남은. 치과기공사들의 직장이동과 그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경순. 중학생의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진로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 민. 생활양식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영해.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실태 및 만족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에스터. 치기공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미화. ‘혼불’에 나타난 가족사의 인물 유형 연구; 아들의 세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Corey G(조현춘, 조현제 공역).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서울 1996.

Kern D V.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55, 1999.

Lundin PW(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공역). 에들러 상담이론. 학지사, 서울 2001.

Mahoney PW & Cairns SH. Evaluating the nature of perceived support and its relation to perceived self-worth in adolescents. J of Research on adolescence, 5, 253-280, 1997.